

“부자 되고 싶어 시작한 야구, 이젠 누군가의 꿈 되고 싶어”

공을 던지는 모습에 반해서, 유니폼이 멋져 보여서, 형을 따라서... 많은 야구 선수들에게 “왜 야구를 시작했어?”라는 질문을 했고, 다양하지만 비슷한 답을 들은 것이다. 그래서 “부자가 되고 싶어서요”라는 답은 특별했다. 남들과는 차별화된 생각으로 야구를 시작한 그는, 2019시즌 KIA 타이거즈의 ‘핫 스타’ 내야수 박찬호다.

박찬호 어린이에게 야구 선수는 ‘부자’였다. 화려한 조명 아래서 팬들의 뜨거운 함성을 받으며 사는 만큼 어린 박찬호는 그들이 부자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

“돈 벌려고 야구를 시작했다”며 웃음을 터트린 박찬호는 “야구 선수 하면 진짜 부자가 되는 줄 알았다. 초등학교 때 야구를 보는데 저 사람들은 부자이겠지 그런 생각을 했다. 나도 ‘부자’ 해야지라는 생각이었다”고 야구 선수의 꿈을 꾸기 시작한 순간을 떠올렸다.

신입초-건대부중-장충고를 거친 ‘서울남자’ 박찬호의 고향은 대구다. 대구에서 태어나서 5살까지 살았던 그는 부모님을 따라 부지런히 야구장을 오갔다.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 때 우연히 ‘삼성 광팬’이었던 친구를 만나면서 야구 열정이 샘솟았다.

박찬호는 “아기 때부터 부모님이 야구장을 많이 다니셨다. 집 앞이 대구시민구장이기도 했다”며 “초등학교 1학년 때 삼성 팬인 친구가 잠실 삼성 경기가 있으면 야구장을 갔는데 나도 같이 따라가고 그랬다”고 말했다.

열심히 야구장을 쫓아다니면서 야구 선수의 꿈은 키웠지만 부모님의 반대가 컸다. 한때의 바람이라고 생각했던 부모님의 고단수 방해 작전도 전개됐다. 하지만 박찬호는 인내와 실력으로 4학년 때 마침내 야구 유니폼을 입었다.

그는 “1학년 때부터 야구 시켜달라고 졸랐는데 4학년 때 야구를 시켜주신다고 했다. 내 고집이 금방 깨질 줄 몰랐다. 그런데 1학년 때부터 동네 야구를 하고 그러니까 부모님이 지쳤다”며 “리틀 야구를 했는데 주말반과 선수반이 있었다. 처음에는 주말반 하려고 했는데 부모님이 선수반을 시켜줬다. 지쳐서 그만두게 하려고 했는데 내가 계속 버텼다”고 야구 선수가 된 과정을 이야기했다.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본격적인 야구 선수의 길에 접어들던 그는 팀에 들어가자마자 유격수 자리를 꿰찬 자칭 ‘야구 천재’였다. 박찬호는 “어렸을 때 팀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유격수로 시합을 뛰었다. 진짜 잘했다”며 “완전 체력이 작았는데 동네 야구하면서 다 이빙 하고 난리였다. 힘만 붙으면 방향이 잘 걸려서 이 야구를 들었다”고 언급했다.

학부모 티볼 대회 날, 누구보다 돋보였다는 어머니의 센스를 그대로 물려받은 박찬호는 이렇다 할 힘든 시간 없이 프로야구 선수의 꿈을 향해 거침없이 직진했다. 청소년 대표로도 중흥무진 그라운드를 누볐던 그는 당연히 프로 구단 스카우트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그리고 2014 신인 드래프트 현장에서 박찬호의 이름이 호명됐다. KIA의 2차 5라운드 지명을 받으면서 조명을 받았지만 그의 표정은 밝지 않았다.

박찬호는 “지명받았을 때는 기분이 안 좋았다. 대학을 가려고 생각하고 있었고, 지명 순번도 뒤라서 속상했다”고 당시를 설명했다. 대학 진학 소문에 예상보다 늦은 순번을 받은 그는 결국 스카우트의 설득에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

우여곡절 끝에 KIA 유니폼을 입은 그는 타고난 수비 재능으로 기대를 모았다. 신인이었던 2014년 17경기에 나왔던 박찬호는 2015년과 2016년에는 각각 69경기에 출전해 프로 무대를 경험했다.

수비에서는 당찬 모습을 보여줬지만 타격은 부족했다. 입단 후 3년간 박찬호가 기록한 안타는 34개에 불과했다. 마음과 다른 결과들이 이어지면서 박찬호는 2016 시즌이 끝난 뒤 심기일전을 위해 군복무를 선택했다.

박찬호는 “당시 김기태 감독님께서 입대를 제안하셨다. 빨리 군 복무를 해결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했다”며 “당시 야구실력이 형편없었다. 야구를 하면서 정신적으로 가장 힘든 시기였던 것 같다. 야구와의

관태기가 있다면 그때였던 것 같다”고 돌아봤다.

상무야구단에 지원했지만 탈락을 한 박찬호는 재수 대신 과감히 현역 입대를 선택했다. 돌아보면 재부심과 아쉬움이 교차하는 2년이었다.

박찬호는 “진짜 새로운 경험이었다. 야구하는 친구들과 항상 같은 길을 걷는 사람들과고만 살다가 다른 삶을 사는 평범한 사람들을 만났다”며 “한국의 가장 보편적인 삶을 사는 친구들과 새로운 생활을 해봤다. 그리고 자부심도 느꼈다. 사실 꿈도, 목표도 없이 흘러가는 이들도 많았다. 나는 늘 꿈을 꾸면서 살아왔었다. (프로 선수의 꿈에 도전하면서 살았던) 어린 시절의 나는 정말 멋진 친구였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고 언급했다.

우승 현장에 서지 못한 건 박찬호에게 진한 아쉬움으로 남아있다. 박찬호는 “2017시즌에 TV를 통해 팀이 우승하는 걸 지켜봤다. 그 현장에 없다는 게 너무 아쉬웠다. 그때 입대를 후회했었다”고 웃었다.

박찬호는 팀을 떠나있던 시간 착실하게 또 다른 꿈을 위한 그림을 그렸다. 3년의 프로 생활을 통해서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확인한 박찬호는 힘을 키우기 위해 웨이트에 많은 공을 들였다. 휴가 기간도 허투루 보내지 않았다.

챔피언스필드를 찾아 훈련을 하기도 했던 박찬호는 말년 휴가는 아예 함평 웰린저스필드에서 보내며 감을 살리는 데 신경을 썼다. 제대 이후에도 겨우내 훈련에 매진했던 그는 뒤늦게 1군 캠프에 합류했고, 개막 엔트리에도 들지 못했지만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4월 5일 1군 콜업을 받고 군 복귀전을 치른 박찬호는 안정된 수비 실력에 달라진 타격 힘까지 보여주면서 눈도장을 찍었다. 주축 야수들의 부상과 부진 속, 투지 넘치는 플레이에 타격 실력까지 보여주면서 박찬호는 어느새 ‘수비 유망주’에서 KIA의 ‘희망’이 되어 있었다.

박찬호는 “시즌 시작하면서 이렇게 빨리 기회가 올 것이라고 생각 안 했다. 그런데 기회가 왔다”며 “꾸준하게 경기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 큰 도움이 된 것 같다. 처음에 주전 선수들이 부상으로 빠지면서 계속 경기에 나갈 수 있었다. 지금 이 타석에서 못해도 다음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니 타격을 편하게 할 수 있었다”고 돌아봤다.

한층 높아진 사람들의 기대감. 하지만 부담감은 없다. 대신 박찬호의 욕심은 차고 넘친다. 박찬호는 “안타 많이 치고 잘해야 살아남는 것이다. 그런데 부담감을 느낄 만큼 내가 위에 있지는 않다(웃음). 내가 선빈이 형과 치훈이 형이라면 부담감이 이해가 가지만 아직 그런 위치는 아니다”면서도 “대신 욕심은 많다. 욕심이 많아서 경기 도중에 분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안 좋은 거다. 내 감정을 못 숨기는 거다. 이런 부분은 신경 쓰겠다”고 말했다.

KIA의 2019시즌에 빼놓을 수 없는 선수가 된 박찬호는 이제 ‘코리아 특급’ 박찬호처럼 누군가에게 꿈과 힘이 되는 이름이 되는 꿈을 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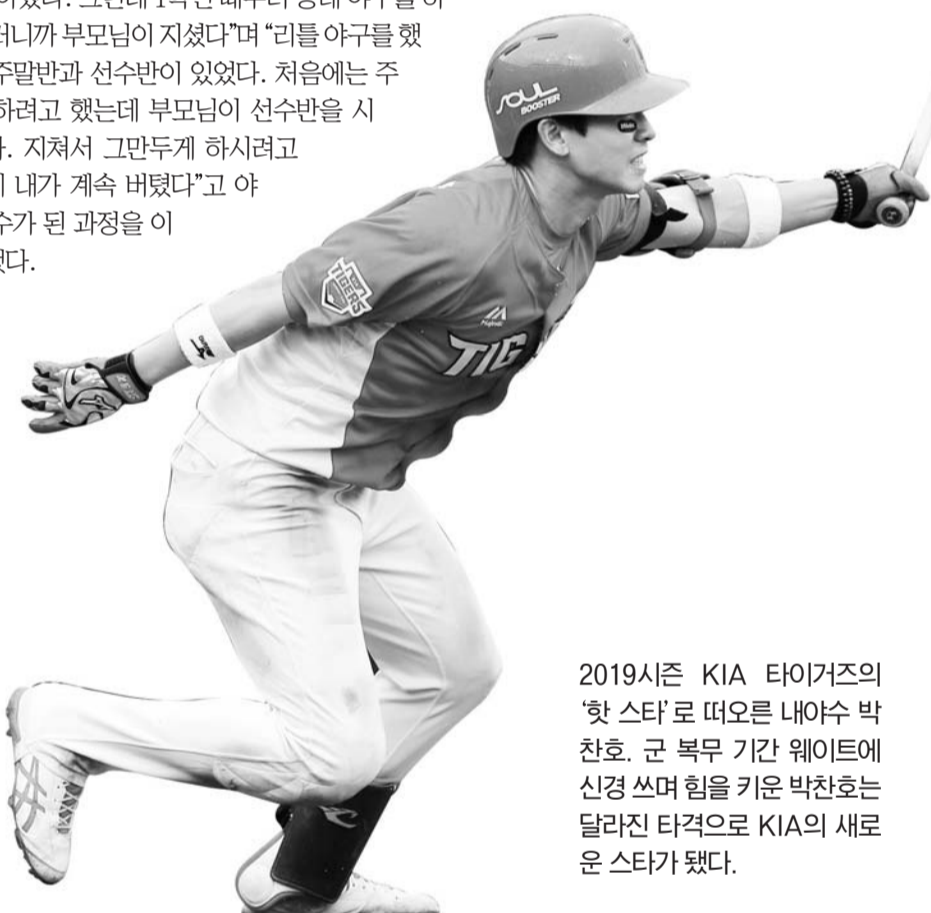
“항상 그라운드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몸을 사리지 않는 플레이로 팀 승리에 역할을 하면서 더 큰 선수로 성장하고 싶다. 나도 누군가의 꿈이자 목표가 되고 싶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사진=KIA타이거즈 제공

KIA 타이거즈 ‘핫 스타’ 내야수 박찬호

리틀야구 선수반을 시작으로 프로 꿈 향해 거침없이 직진

2014년 KIA 입단... 2017년 팀 우승때 군복무 아쉬움 커

‘훈련 또 훈련’ 제대 후 1군 합류... ‘수비 유망주’에서 ‘KIA 희망’으로



2019시즌 KIA 타이거즈의 ‘핫 스타’로 떠오른 내야수 박찬호. 군 복무 기간 웨이트에 신경 쓰며 힘을 기른 박찬호는 달라진 타격으로 KIA의 새로운 스타가 됐다.

작은만남 큰 기쁨! 친절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업·성업 안내

광주일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업무국 062.220-0551



초대 화랑
동구 중앙로 196번길 15-16 (공동 54-2)
동양화 서양화 전문판매점
대표 임해택 ☎062)222-2516

학산운명감정원
동구 대인동 고운하이츠 오피스텔 302호
사주, 작명, 개명, 공합, 신수, 택일
사업, 시험, 진급, 결혼, 중매 (경력33년)
원장 전홍석 ☎ 010-8003-9000

클로버 부동산
북구 필문대로11번길 6 (풍향동)
모든 부동산 사고 팝니다.
임야, 전답, 토지, 상가건물
재건축·재개발 매매임대
☎ 010-5707-6676

루팡닭강정
북구 용두동 우방아이유헬싱가
매운맛, 달달한맛
개인·단체 환영
대표 한경수 ☎ 010-3844-7145

토산철학원
북구 두암동 에덴산부인과 정문옆
작명, 개명, 사주, 신수
공합, 택일, 상호명 개인지도함.
대표 이태연 ☎010-4106-5055

동양철학원
동구 불로동 11-2 (평화시장 옆길)
사주, 작명, 개명, 신수, 공합
택일, 개인지도 함.
☎062)224-7687, 010-2611-7687

백세쭈꾸미식당
전남 나주시 이창동 158-16번지
쭈꾸미, 삼겹살, 갈비, 오리로스
☎061)332-7313, 010-8224-7313

그 집 고기
북구 침단 연신로 107번길 5-20 (침단 2지구 문화실험 뒤)
편·돼지고기 전문·달걀
대표 양병학 ☎010-6648-8842

태극익스프레스
동구 계림동 519-36(구,계림시장동)
포장이사, 일반이사, 피아노 인부대기
각종 화물 바구니 무료
친절.신용.본위
☎062)222-2424, 011-664-2202

양지공인중개사
북구 두암동 부영아파트 정문앞
아파트, 빌딩, 원룸, 투룸, 상가
임야, 토지 경매관리분석
대표 정민각 ☎ 062)263-2223

무크광주세정점
서구 상무대로 773 세정아울렛 2층 258호
화사한 봄 신상품 대량임고
남·여 20~40% 세일 (일부품목 제외)
☎062)370-9258

고흥나루터
동구 지산동 705-9 (법원뒷길)
하모(참정어), 사브사브전문점
바다장어구이, 장어탕
대표 모복자 ☎062)222-3092

금강버티컬
버티컬, 커튼, 블라인드, 홀딩도어
콤비틀스크린, 전동틀스크린,
우드블라인드, 실사틀스크린,
허니콤블라인드의 제작 및 시공
☎062)514-6118, 010-5627-6119

박당화랑
동구 공동 51-18번지 예술의 거리
한국화, 서양화 매매 및 감정
대표 박환승 ☎062)222-6866

으뜸공인중개사
북구 두암동 동시교회앞 골목
아파트, 빌딩, 원룸, 주택, 상가
토지 전월세 및 매매임대
분양권 상담알선 책임중개 전문
☎062)263-5383, 010-6338-5383

고전방
동구 공동 34-4 (중앙초등학교 후문)
도자기, 서양화, 고서화 전문판매점
대표 김화중 ☎062)224-4869

청학철학원
북구우치로 39-1 (중흥신협옆2층)
작명·사주·운세·공합·택일
시험·승진·사업·재물·직업
부부교습 및 전문 연구원
청학 서광호 ☎010-9866-2332

진주공방
동구 지산동 동구국민체육센터앞
가죽공예 수업 및 주문 제작
원데이클래스 학교수업 단체수업
가족소품만들기
☎010-3906-1718

석당화랑
동구 공동 예술의 거리
병풍, 액자, 족자, 표구일체
고서화 위탁판매
대표 이석재 ☎062)222-3118

신신예술의집
동구 공동 예술의 거리
기념품 전문 판매점
대표 서태석 ☎062)222-1936

국수나무용봉점
북구 용봉동 109-4번지 (국민은행 건물내)
모든 메뉴 포장가능,
도시락 단체 주문 받습니다
☎062)526-5475, 010-8621-5959

기담철학원
북구 우산동 무등도서관 옆
(우산그린공원 옆)
사주(음권·양권) 쉽게 가르쳐드립니다.
개인·단체 환영
☎062)432-1324